

도내기생 건강시민 선발한다

전주시실공단, 도내기생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대상 시민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진행

전주시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1일 공단에 따르면 도내기생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도내기생 건강시민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두 차례 '인바디(Inbody, 체성분 분석 기기)'를 통해 체성분을 측정해 점수가 높은 시민을 선발해 포상하는 행사다. 나이나 성별에 상관 없이 '월 정기권(강습권)'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나이에 따른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해 '일반부(19~64세)'와 '어르신부(65세 이상)'로 나눠 '건강시민'을 선발한다. 합산 점수가 높은 '건강왕' 뿐 아니라 1차 측정 이후 2차 측정 결과 점수가 가장 상승한 '노력왕'도 선발한다. 대회는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1차 측정은 이달 1~3일, 2차 측정은 7월 1~3일 실시된다. 수상자들에게는 도내기생 카페 쿠폰이 제공된다. 최우수상은 3만 원, 우수상은 2만 원, 장려상은 1만 원 상당이

=전주시민 건강지킴이 프로젝트=
도내기생 건강시민 선발대회

대회 안내

- 1. 기 간:** 2025년 4월 ~ 7월
- 2. 대 상:** 도내기생 국민체육센터 월 정기권(강습권) 이용객
- 3. 방 법:** 선발대회 기간 중 센터 방문 (인바디 측정)
- 4. 상 품**
 최우수상 - 도내기생 건강시민 명예의 전당 등재, 도내기생 카페 쿠폰
 입상자 - 도내기생 건강시민 마크(회원카드), 도내기생 카페 쿠폰
최우수상: 3만원 상당, 우수상: 2만원 상당, 장려상: 1만원 상당

전주시실공단은 도내기생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도내기생 건강시민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다. 특히 최우수상 수상자는 '도내기생 건강시민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또 입상자 전원에게 '도내기생 건강시민 마크'가 지급된다. 이연상 이사장은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꾸준히 운동하

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많은 시민이 건강을 챙기는 뜻 깊은 도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도내기생 국민체육센터(063-239-2740, 27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 '블루라이트 캠페인'

전북대병원, 세계자폐인의 날 맞아 자폐성장애인 관심·이해 상징 글로벌 캠페인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중철)이 세계자폐인의 날을 맞아 블루라이트(LiUB)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블루라이트 캠페인은 매년 4월 2일 세계자폐인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의 지역 명소가 파란 불을 밝혀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전북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센터장 박태원)에서는 세계자폐증인의 날을 기념하고 자폐증 환자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말 24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전북백아학교와 협력하여 그림 전시회를 진행하는 형태로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참여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한 이번 그림 전시회는 자폐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적 이해와 공



전북대학교병원이 세계자폐인의 날을 맞아 블루라이트(LiUB) 캠페인을 진행했다.

감을 높일 수 있어, 내·외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병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돼 △소아정신과정문의 △행동치료사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태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센터장은 "자폐성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없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세금 누수 잡는다"... 결산 검사 돌입

전주시의회, 주요 사업 집행 실태 점검... 재정 건전성 강화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박혜숙(사)가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1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산검사는 전주시의 예산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4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다.

결산검사위원회는 검사 기간 동안

△사업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블로그·이월 예산 발생 사유 △국비 사업 집행·반납 △성과 대비 예산 효율성 △사업별 예산 증감·과다 편성 여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공모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공사 지연이나 부실 집행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또 복지 예산과 교육, 문화 등 주민과 직결된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었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혜숙 대표위원은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결산검사를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며 "예산이 애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철저한 검사를 펼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집행부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운영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박혜숙(송천1동), 김동현(삼천1·2·3·4동) 의원, 송승용 전 도의원, 정종표, 최춘희 전 전주시 공무원, 봉산중 세무사, 이철희 공인회계사 등 7명이 참여한다.

/김옥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청명·한식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다가오는 청명(4일)과 한식(5일)을 맞아 산불 예방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서 내 모든 소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전주완산소방서는 관내 주요 산림인접지역 및 전통사찰, 공원묘지 등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대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 의용소방대와 함께 산림인접마을 및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방문 및 안내활동,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을 병행한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청명·한식은 건조한 날씨 속 성묘객과 야외활동 인구가 많아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자제해 주시고,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많은 시민이 건강을 챙기는 뜻 깊은 도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도내기생 국민체육센터(063-239-2740, 27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여의동 봉사단체 '나비채', 독거어르신에 반려식물 전달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봉사단체 '나비채(나누고 비우고 채우고)'가 식목일을 맞아 지역 독거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했다.

나비채(회장 이기중)는 1일, 여의동 주민센터(동장 송해인)를 찾아 지역의 독거어르신 100명에게 반려식물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사회적 고립감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식물들

매개로 정서적 지지와 활력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전달된 반려식물은 양현중학교 생태발자국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준비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나비채는 지역주민 1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봉사단체로, 2009년부터 식목일마다 지역사회에 반려식물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 밖에도 어버이날, 추석 등 명절마다 소외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

하고 있다.

이기중 나비채 회장은 "반려식물이 어르신들께 하루를 살아가는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슬수도 정을 나누는 따뜻한 동네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송해인 여의동장은 "매년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나비채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간이 함께 어우러져 더 따뜻한 여의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효자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밑반찬 전달

전주시 효자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희경)는 지난달 28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30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월 1회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며, 건강상태와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밑반찬을 전달받은 대상자는



"매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반찬을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따뜻한 관심 덕분

에 외롭지 않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희경 위원장은 "혼자서 식사 하거나 음식 만들기 어려운 이웃들이 영양 가득한 음식을 드시고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양명숙 효자5동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흡족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